

## 위험한 삶을 원한다면 전시장을 방문하라<sup>1</sup>

표민홍

2012년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데미언 허스트의 개인전 기간 중, 동물 사체가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채워진 수조에 보존된 작품 주변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2016년 영국 가디언지는 동물 사체가 담긴 탱크 주변에 포름알데히드 증기가 존재하며, 법적 허용 안전 기준치 0.5ppm 보다 열 배 높은 5ppm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sup>2</sup>

2026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은 데미언 허스트의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다.<sup>3</sup>

\*

‘SDS’는 ‘Safety Data Sheet(안전 자료)’의 약자이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주요하게 적용되는 문서이다. 하지만 미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작업자는 산업 단위가 아닌 개인 창작자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감독의 주체와 사용의 주체가 분리될 수 없는 작업환경은 위험 상황을 맞닥뜨리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공업용 재료를 작품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SDS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유독성 파운드 오브제를 사용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술 작업환경에 모든 안전 데이터를 들이밀며 안전한 창작과 안전한 전시를 강요할 순 없다. 안전 데이터가 지시하는 위험 요소가 실제 작업/전시 현장에서 고스란히 문제로서 작동할 것인지 미리 모든 수를 내다볼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닌 이 상황을 각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전시장은 물론, 작업자의 작업환경 역시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안전기준이 존재하지만 미술 노동환경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운드 오브제가 널린 작업실, 터펜타인 냄새로 가득 찬 폐인

1 Jonathan Jones, “If you want to live dangerously, visit an art gallery,” The Guardian (21-April, 2016):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jonathanjonesblog/2016/apr/21/damien-hirst-leaking-vitrines-poisoned-air-tate-modern>

2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 “Damien Hirst’s preserved carcasses leaked formaldehyde gas, study claims,” The Guardian (21-April, 2016):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6/apr/21/damien-hirsts-preserved-carcasses-leaked-formaldehyde-gas-study-claims?utm\\_source=chatgpt.com](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6/apr/21/damien-hirsts-preserved-carcasses-leaked-formaldehyde-gas-study-claims?utm_source=chatgpt.com)

3 황수진 기자,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주요 계획 및 전시 발표」, 『월간미술』: <https://monthlyart.com/portfolio-item/2026%EB%85%84-%EA%B5%AD%EB%A6%B-D%ED%98%84%EB%8C%80%EB%AF%B8%EC%88%A0%EA%B4%80-%EC%A3%BC%EC%9A%94-%EA%B3%84%ED%9A%8D-%EB%B0%8F-%EC-A0%84%EC%8B%9C-%EB%B0%9C%ED%91%9C/>

터의 작업실, 나무를 갈아낸 먼지가 떠다니는 작업실 등 조금 과장하여 표현했지만 작업실에는 적잖은 위험이 도사린다.

매년 실시하는 소방 점검 역시 꽤나 문제적이다. 공공기관이나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련 소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구조물은 소방법에 저촉되게 보일 수 있다. 소방 점검자의 관점은 전시장 관람자와는 다르다. 구조물에 덧대어진 일반 커튼의 ‘방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영구 설치물이 아닌 전시를 목적으로 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몇 마디 설명이 커튼을 방염/난연 재질로 변하게 하는 마법이 될 수는 없다. 구조물 또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방 점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규모와 적치 시간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외 소방 관련 문제를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안전관리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지만, 개인단위에서 이러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위험은 당사자의 몫이다. 우리의 작업환경은 안전한가?

1. 어느 뜨거운 여름날, 전시 공간 A를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의문의 냄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냄새는 이내 두통을 유발할 정도였다. 실제로 유독성 냄새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냄새로 인하여 체류시간은 1분을 넘기지 못했다.
2. 입구 쪽이 전면 창인 전시장 B에서 합판으로 가벽을 세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그 자체가 작업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난히 더웠던 날씨 탓에 전시장 온도는 뜨거운 외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전시장에는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냄새가 존재했다. 합판 제작 시 사용하는 접착제의 주성분인 포름알데히드.

실내 인테리어 혹은 가구 제작에 적합한 등급의 합판일지라도 시공 초기에는 냄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베이카아웃(Bake-out), 즉 실내 온도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촉진하고 환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잔여 유독가스를 최소화한다. 베이카아웃을 하는 동안은 출입을 삼가거나 환기를 위한 출입 시에는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베이카아웃은 널리 알려진 새집증후군 예방법의 하나다.

B전시장의 합판은 새것이었으며 등급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에 베이카아웃과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눈이 따가울 정도로 활발하게 포름알데히드 증기가 뿜어져 나와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체류시간은 5분 정도다. 눈이 따가운 악조건에서 절대 짧지 않은 5분 남짓 전시 관람이 가능했던 것은 수년간 새 공간 냄새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일까? 새로 생긴 건물, 새로 단장한 카페 인테리어, 매 시즌 바뀌는 백화점 인

테리어 등, 언젠가부터 종종 그 냄새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깨끗함/새것의 의미로서 여겨지고, 이제는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다.

3. 전시장 C는 지하에 위치한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 특성으로 인해 영상 전시가 많은 편이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재난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 A작가는 비상구 유도등을 작업의 일부로 끌어들이며 안전 문제를 가시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A작가의 전시 이후에도 그 비상구 유도등은 계속 가려져 있었다. 비상구 유도등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별도의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안전보다 중요한 전시는 무엇일까? 이곳을 찾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4. 전시장 D, 소복하게 내린 눈처럼 전시장 창틀에 분진이 쌓여있었다. 그곳에 있던 분진의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합판, 석고보드, 페인트가 주성분일 것이다. 목재 분진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전시공간은 벽에 작품을 걸기 위해 석고보드와 합판을 뚫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그 구멍을 메우고 매끄럽게 갈아내기를 반복하는 곳이다. 창틀에 쌓인 분진이 전시의 일부가 아니라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행여 그것이 전시의 일부였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닥칠 위협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은 너무나도 실용적이다.

당신의 미술은 안전한가?

---

표민홍은 시각예술가다. 장소, 사람, 사건 등 알려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와 상태를 개인적 서사에 덧붙여 일련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질문한다.